

조선일보에게 요청합니다.

친일 문인 기념 동인문학상 운영과 시상을 중단해주십시오!

김동인은 1939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을 찾아가 문단사절을 조직해 중국 화북지방에 주둔한 '황군'을 위문할 것을 제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지황군위문문단사절'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일제에 부역한 대표적인 친일문인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문인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1943년 4월 조선총독부의 지시 하에 조선문인보국회에 가담했습니다. 문필활동은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선전 선동하면서 일제에 협력하는 글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그에겐 '내선일체'는 문젯거리가 안 됐으며, 그는 다만 '일본 시민'일 따름이었습니다. '천황폐하' 아래서 생사를 같이하고 영고를 함께 하는 백성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은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요 또는 가족의 것도 아니요 황궁하옵게도 폐하의 것이며 지금 폐하의 어본부로 완적을 멸하려는 성검을 잡고 일어선 바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인의 애국심 강도를 다루어 보는 저울이라고 하면서 학병제도 독려했습니다.

김동인은 1945년 8월 15일 오전, 해방이 되는 날까지 조선총독부 정보과를 찾아가서 '시국에 공헌할 새로운 작가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친일 행적을 가진 김동인을 조선일보에서 '문학상'으로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작가를 기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요? 머릿이 그런 작가를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주고, 영광스런 권위와 명예의 월계관을 씌워줄 만큼 우리나라의 문학이 허약한 것인지요?

동인문학상은 1955년 『사상계』가 제정하여 1956년부터 시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6년부터 1967년까지는 사상계에서 운영하다가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동서문화사, 1987년부터는 조선일보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 양심과 냉정한 관점을 가지고, 반역사적 반민족적 '친일 문인 기념 문학상'의 대표격인 동인문학상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학은 한 나라를 넘어서는 인류사이며 인간 모두의 보편성에 바탕을 둔 철학이며 예술 정신입니다. 식민지 종주국을 찬양한 부역자를 후대에서도 여전히 찬양하는 국가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해도 그 정신사적 근대성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동인문학상은 황석영, 공선옥, 고종석 소설가 등이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으며 자신들이 수상 후보작으로 오르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가 된 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동인문학상을 거절하는 작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수상 거부 작가들이 등장한 순간, 동인문학상은 문학상으로서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역사와 명예를 지금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면 한낱 알량한 작가들의 허욕에 기대는 동인문학상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선일보의 독자는 물론이고 반대편에 선 국민들도 조선일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선일보는 친일 문인 기념 동인문학상 운영과 시상을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2019년      월      일